

청소년들의 감각처리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 자아존중감과의 비교

김소영, 김은경*, 박진선**, 전서현, 장문영***

*일산병원, **온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청소년의 감각처리 특성을 알아보고 감각처리특성의 분류에 따라 그 정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인 성별, 건강상태, 내원유무, 평소감각문제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감각처리 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군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연구방법 : 부산, 경남지역 고등학교의 3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과 한국어판 매일 스트레스 평가서 (Korean Version of Daily Stress Inventory, K-DSI),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질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회수 하였다. 최종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88부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감각처리특성 중 감각 찾기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각에 민감함과 감각회피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우울이 높을수록 등록저하, 감각회피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감각회피와 감각에 민감함 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감각찾기 점수는 낮아졌다.

결론 :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의 표준치 제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감각처리에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감각처리, 스트레스, 우울감, 자아존중감

I. 서 론

우리 몸의 신경계는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움직임, 신체위치 등 여러 감각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정보들을 쉽게 연고 처리할 수 있다(김영미, 2008). 이 과정을 감각처리과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신경계로 감각을 받아들여 신경계 내에서 감각

을 조절하고 통합하며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각처리능력은 인간의 행동에 크거나 작게 영향을 미친다(Dunn, 2001). 감각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Case-smith & Bryan, 1999). 이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응하거나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Brown & Dunn, 2002). 이러한 부정적인 생활 경험을

교신저자: 장문영 (myot@inje.ac.kr)

접수일: 2013.07.01

|| 심사일: (1차: 2013.07.15 / 2차: 2013.08.05)

|| 게재확정일: 2013.08.09

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김성경, 2007).

스트레스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김영희, 1999).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속하는 청소년기는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명숙, 2010). 또한 사춘기는 감정적이고 모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시기로 가치관 혼란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1/3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들은 교우 관계, 자아 성찰, 가족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따른 발달상의 변화 등을 통해 사회,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청소년 우울이나 자살충동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최태산과 서미정, 2000).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이나 적응을 하는데 있어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우울을 겪게 될 경우 학업문제와 교우관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김은경, 2006).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주요한 신체적 변화 및 심리적, 사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사회적 역할 변화 및 새로운 자아 정체감의 정립이 요구된다(오수현, 2010).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사회로 나가기 전단계인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아와 정현희, 1999).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인생의 발달 주기와 관련 하여 청소년기의 여러 기능들, 즉 개인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낮은 불안과 학업성취 등과 같은 인생의 발달 주기와 관련된다(Erikson, 1959).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감각사건의 연속이다. 외부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과정은 감각자극에 대한 행동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박미희와 김경미, 2007; Miller & Lane, 2000).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러한

과도기의 복잡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혼란, 갈등, 정서적 고통 등 심한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명숙, 2010). 또한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자살 충동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최선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과 환경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즉, 감각처리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감각처리특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각처리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이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 다섯 개 고등학교의 3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22부를 제외하고 28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표 1).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위해 경남 지역의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남·여 고등학생 1, 2학년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각 학교의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완료 후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지 310부 중 310부가 회수되어 총 설문지 회수율은 100%이었다. 이 중 무응답률이 높거나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22명(남학생 15명, 여학생 7명)을 제외시켜, 최종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88부(92%)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합계 N(%)
성별	남	166	57.6	288(100.0)
	여	122	42.4	
연령	만 15세	7	2.4	288(100.0)
	만 16세	95	33.0	
	만 17세	186	64.6	
평균 연령(M±SD)		16.62±0.53		
종교	무교	146	50.7	288(100.0)
	기독교	45	15.6	
	불교	78	27.1	
	천주교	16	5.6	
	기타	3	1.0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19	6.6	288(100.0)
	만족	96	33.3	
	보통	135	46.9	
	만족하지 않음	30	10.4	
	매우 만족하지 않음	8	2.8	
학교생활 적응도	최상	43	14.9	288(100.0)
	상	118	41.0	
	중	118	41.0	
	하	9	3.1	
	최하	0	0	
성적 수준	최상	19	6.6	288(100.0)
	상	69	24.0	
	중	138	47.9	
	하	52	18.1	
	최하	10	3.5	
건강상태	좋지 않음	44	15.3	288(100.0)
	좋음	244	84.7	
내원 유무	있음	52	18.1	288(100.0)
	없음	236	81.9	
평소 감각 문제	있음	11	3.8	288(100.0)
	없음	277	96.2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사항 11문항, 감각처리 60문항, 스트레스 58문항, 우울 21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총 150문항이었다.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감각처리에 대한 Dunn의 모델에서 발달되었으며 일상적인 경험에서 성인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은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의 행동적 반응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파일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11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3~10세의 아동의 감각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아동용 감각프로파일을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감각프로파일 대상자는 질문에 나타난 60개의 감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5점 척도로 답하게 된다. 1점은 그 감각에 대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이며 5점은 “항상 그렇게 반응한다.”이다. 60개의 질문은 Dunn의 모델에서 제시한 등록저하(low registration), 감각찾기(sensation seeking), 감각에 민감함(sensory sensitivity), 감각회피(sensation avoiding)의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다(박미희, 2007).

2) 한국어판 매일 스트레스 평가서(Korean Version of Daily Stress Inventory, K-DSI)

Brantey 등이 1987년 개발하고 조숙행 등이 1994년 번안한 한국어판 매일 스트레스 평가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58개의 흔하고 사소한 사건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7점 척도로 1점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이고, 7점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는다.”이다. 총 58개의 문항은 스트레스 요인의 형태 또는 구조에 따라 5영역으로 평가한다. 대인 관계의 문제(interpersonal problems)가 12항목, 개인적 능력(personal competency)이 10항목, 인지적 스트레스 요인(cognitive stressors)이 5항목, 환경적인 사소한 생활사건(environmental hassles)이 14항목, 기타 스트레스 요인(varied stressors)이 17항목이다. 또한 K-DSI는 스

트레스 사건의 빈도인 사건점수(event score), 스트레스 지각에 해당하는 영향점수(impact score), 그리고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영향/사건 비율점수(impact/event ratio score)로 평가하고 있다. 영향/사건 비율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조숙행, 이현수, 광동일과 남민, 1997).

3)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73)이 개발한 Beck 우울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 된 평가 도구이다. 우울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자가 보고형 척도로서 우울증상의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영역을 포함하여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각 항목에 제시된 4개의 자기 진술문 중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0~9점까지는 정상상태, 10~15점까지는 경한 우울상태, 16~23점까지는 중한 우울상태, 24~63점까지는 심한 우울상태로 분류하였다(Beck, 1973).

4)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Rosenberg가 1965년에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가 1974년에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기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채점방식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서 긍정적인 응답에서 1점은 “거의 그렇지 않다”이고 4점은 “항상 그렇다”이며, 부정적인 문항(3,5,8,9,10)은 역채점 하였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김경립, 2008).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점수 해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점수를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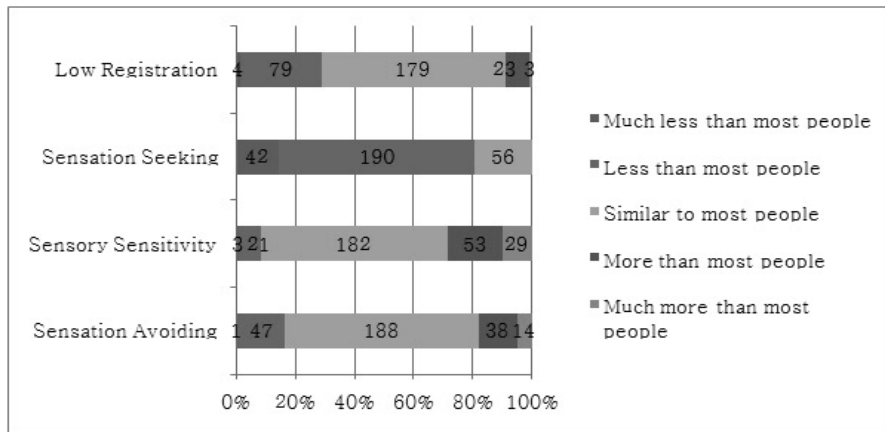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자의 감각처리특성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AASP 점수 비교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M±SD	t	M±SD	t	M±SD	t	M±SD	t
성별	남	30.58±6.83	-1.010	36.57±7.08	2.829**	36.43±8.26	0.056	33.76±8.19	0.324
	여	31.42±7.16		34.20±6.99		36.38±8.93		33.43±8.67	
건강 상태	좋지 않음	33.48±8.23	2.288*	36.16±7.70	0.599	40.59±8.76	3.603**	35.84±8.34	1.917
	좋음	30.48±6.63		35.46±7.03		35.66±8.29		33.22±8.35	
내원 유무	있음	33.31±7.339	2.743**	37.58±7.544	2.264*	38.58±8.795	2.033*	34.19±8.27	0.542
	없음	30.41±6.792		35.12±6.971		35.93±8.423		33.50±8.42	
평소 감각 문제	있음	36.55±6.47	2.753**	39.73±9.63	1.474	43.82±10.69	2.975**	40.00±7.73	2.599**
	없음	30.71±6.91		35.40±6.98		36.12±8.33		33.37±8.32	

하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각처리 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각각의 군 간 차이를 알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 및 Scheffe 사후 검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 = .05$ 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청소년의 감각처리특성

대상자의 감각처리특성에 따라 다섯 분류로 나눈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등록저하(low registration)에서는 similar to most people (=)이 179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감각 찾기(sensation seeking)에서는 less than most people (-)이 190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more than most people (+)와 much more than most people (++)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감각에 민감함(sensory sensitivity)에서 similar to most people (=)이 182명(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각회피(sensation avoiding)에서 similar to most people (=)이 188명(65.3%)으로 가장 많았다.

표 3. 감각 처리 특성과 우울감의 군간 차이

구분	N(명)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우울이 없는 사람	124	28.94±6.02			35.89±6.76			32.70±8.31			31.19±8.528		
경한 우울	93	30.77±6.88	11.185**	1,3** a	35.55±7.04	0.325		38.29±7.21	17.681**	1,2**	34.23±7.428	8.621	1,3**
중등도 우울	51	34.78±6.80		1,4**	34.73±7.27		2,3**	39.63±7.56		1,3**	36.43±7.465		1,4**
중한 우울	20	34.25±8.39			35.80±9.49			36.41±8.54			38.70±9.398		
합 계	288	30.93±6.97			35.57±7.13			36.41±8.54			33.62±8.383		

* $p < .05$, ** $p < .01$

a 1: 우울이 없는 사람, 2: 경한 우울, 3: 중등도 우울, 4: 중한 우울

표 4. 감각 처리 특성과 스트레스의 군간 차이

구분	N(명)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스트레스가 적음	47	28.64±6.63			35.17±6.79			31.53±7.54			28.98±6.408		
스트레스가 적절함	201	31.24±6.83	3.355*		35.79±7.07	0.329		36.77±7.91	13.132**	1,2** a	34.17±8.357	10.350**	1,2**
스트레스가 많음	40	32.10±7.65		2,3*	34.92±7.89		40.35±10.14	36.33±8.695		1,3**	1,3**		
합계	288	30.93±6.97			35.57±7.13			36.41±8.54			33.62±8.383		

* $p < .05$, ** $p < .01$

a 1: 스트레스가 적음, 2: 스트레스가 적절함, 3: 스트레스가 많음

표 5. 감각 처리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군간 차이

구분	N(명)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M±SD	F	Scheffe test
자아존중감이 낮음	46	33.41±7.19			33.04±7.17			39.91±7.29			35.98±8.166		
자아존중감이 중간	191	31.38±6.78	12.233**	1,3** a	35.23±6.69	10.025**		36.61±8.47	9.814**	1,3**	33.84±8.460	5.200**	1,3**
자아존중감이 높음	51	27.02±5.98		2,3**	39.12±7.47		32.51±8.42	30.67±7.562		2,3**			
합계	288	30.93±6.97			35.57±7.13			36.41±8.54			33.62±8.383		

* $p < .05$, ** $p < .01$

a 1: 자아존중감이 낮음, 2: 자아존중감이 중간, 3: 자아존중감이 높음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각처리특성 분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각처리특성을 하위 영역 별로 점수를 분석한 결과(표 2), Low Registration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 < .05$), 내원 유무와 평소 감각 문제의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Sensation Seeking에서는 성별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 < .01$), 내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Sensory Sensitivity에서는 건강 상태와 평소 감각 문제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 < .01$), 내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Sensation Avoiding에서는 평소 감각 문제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3. 청소년의 감각처리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구간 차이

감각 처리 특성 중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영역에서 우울감의 네 분류에 따라 F값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Low Registration 영역에서 우울이 없는 사람과 중증도 우울 또는 중한 우울한 사람의 분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 < .01$), 경한 우울과 중증도의 우울한 사람의 분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 Sensory Sensitivity 영역에서는 우울이 없는 사람과 경한 우울 또는 중증도 우울, 중한 우울 각각의 분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표 3).

감각처리특성 중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에 스트레스의 세 분류에 따라 F값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Sensory Sensitivity 영역에서 스트레스에 따른 세 분류 각각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Sensation Avoiding 영역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과 스트레스가 적절한 사람,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분류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표 4).

감각처리특성인 Low Registration, Sensation Seeking,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모두 자아존중감의 세 분류에 따라 F값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Sensation Avoiding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분류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분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영역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은 분류와 자아존중감이 중간인 분류 및 자아존중감이 높은 분류와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표 5).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각 감각처리특성의 분류에 따른 감각처리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건강 상태, 내원 유무, 평소 감각문제 유무에 따른 각 감각처리특성별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감각처리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군별에 따라 어떤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 일 60문항,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한국어판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 58문항, Beck 우울 척도 21문항의 총 150 문항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설문제 신중하게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연령층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판단할 경향이 크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발달단계에 놓여 있다(김미례, 홍경자와 양승남, 2002). 그러므로 감각처리에 문제가 있는 고등학생이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청소년 중 일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나 관련 변인의 내용이 달랐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 차원의 양극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미리, 2005).

일반 고등학생 대상자들의 감각처리특성의 분류에서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에서는 “Similar to most people (=)”이 가장

많았고, “Less than Most people(-) or More than most people (+)”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며 나타났다. 반면 Sensation Seeking 영역에서는 “Less than Most people(-)”의 분포가 높았는데, 이것은 박미희(2007)의 연구에서 각 군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Sensation Seeking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감각처리 정도는 Sensation Seeking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Sensation Seeking의 점수가 낮은 것은 신경학적 역치가 높아 적당한 환경적 자극을 찾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김진경, 최종덕과 이택영, 2007).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건강 상태, 내원 유무, 평소 감각 문제 유무에 따른 각 감각처리특성별 차이는 Sensation Seeking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결과가 더 높게 나와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오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감각추구성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분노,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이성식, 2005).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는 건강 상태, 내원 유무, 평소 감각 문제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최근 내원 경험이 있거나 평소 감각 문제가 있다고 답한 군의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점수가 더 높았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최근 내원 경험이 있는 이들은 주로 피로 문제, 수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신경 생리학적 현상의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하여 매일의 활동에 대처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우며, 수면 부족으로 예민함, 공격성, 불안 등이 증가하기도 한다(이선옥, 안숙희와 김미옥, 2005).

본 연구에서 특성과 스트레스군 간의 차이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Sensory Sensitivity와 Sensation Avoiding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서윤과 하은혜(2009)는 감각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여 감각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며 불특정한 불편감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감각 회피 반응이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과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예상 밖의 일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여 사회생활에서 겪는 문제들로 스트레스가 높아 질 수 있다

(Brown & Dunn, 2002).

본 연구에서 감각처리특성과 우울감군 간의 차이를 연구 해보았을 때, Low Registration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청소년기는 또래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각등록이 “대부분이 사람들보다 낮음”일 경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오래 걸리거나, 쉽게 자극을 놓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극이나 낮은 강도의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그로 인해 사회 생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진아와 이형실, 2011; .Brown & Dunn, 2002).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낮을수록 Sensation Avoiding과 Sensory Sensitivity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Sensation Seeking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새로운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송미옥, 2011; 이정희, 2010; 정환구, 2003). 또한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성취 수준을 보였고, 자신을 성공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탐색이나 참여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승효, 2011; Brown & Dunn, 2002).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가 부산, 경남 지역에 국한되고 고등학생 1, 2학년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과 해석시 한국관이 아닌 외국관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감각처리문제로 예측가능하면서도 연령에 따른 감각 발달이 이루어지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연령별 선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감각처리특성의 분

류에 따른 감각처리능력 정도와 감각처리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군 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 경남 지역의 5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고등학생 1, 2학년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응답하도록 하였고, 기간은 10월 31일에서 11월 4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박미희(2007)가 사용한 AASP를 사용하여 감각처리능력을 알아보았으며 스트레스는 한국어판 매일 스트레스 평가서(Korean Version of Daily Stress Inventory, K-DSI), 우울은 Beck(1973)이 개발한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자아존중감은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고등학생의 각 감각처리특성의 분류에 따른 감각처리능력 정도는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Sensation Avoiding 영역에서는 Similar to most people(=)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Sensation Seeking에서는 Less than Most people (-)이 가장 많았고, More than most people (+)와 Much more than most people (++)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건강 상태, 내원 유무, 평소 감각 문제 유무에 따른 각 감각처리특성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Low Registration에서는 건강 상태, 내원 유무와 평소 감각 문제의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ensation Seeking에서는 성별, 내원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ensory Sensitivity에서는 건강 상태와 내원 유무, 평소 감각 문제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ensation Avoiding에서는 평소 감각 문제에 따라 감각처리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감각처리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군별에 따른 차이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Low Registration과 Sensation Avoiding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Sensory seeking과 Sensation Avoiding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ensation Seeking이 낮았으며 Sensory Sensitivity와 Sensation Avoiding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감각

처리특성과 스트레스, 우울감, 자아존중감의 각 군별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명숙.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 학회지*, 16(3), 195-202.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경림. (2008). *에니어그램 워크샵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주대학교, 상주.
- 김미래, 홍경자, 양승남. (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청소년상담연구*, 10(1), 107-125.
- 김서운, 하은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신체감각 증폭지각 및 신체적 귀인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49-162.
- 김성경. (2007).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영미. (2008). *감각통합장애 유아 조기 선별척도 개발 및 감각통합 기능 특성*.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김영희. (1999). 성격유형과 유머감각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121-138.
- 김은경. (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김진경, 최종덕, 이택영. (2007). 성인의 감각 처리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3), 117-125.
- 김진아, 이형실.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2), 149-159.
- 박미희. (2007).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의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 박미희, 김경미. (2007). 처리특성에 따른 주관적 감각인식의 차이.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5(1), 21-30.
- 송미옥. (2011).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객스*

- 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오미경. (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 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8(1), 109-123.
- 오수현. (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원.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2), 213-226.
- 이경희. (2010).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3), 263-293.
- 이선옥, 안숙희, 김미옥. (2005). 성인여성의 피로 수면장애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2), 163-168.
- 이성식. (2005).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73-298.
- 이승효. (2011). *고등학생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Satir의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수원.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2), 69-84.
- 정환구. (2003). *명상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중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조숙행, 이현수, 곽동일, 남민. (1997). 한국어판 매일 스트레스 평가서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정신신체의학*, 5(1), 97-107.
- 최선미. (2008). 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선에 미치는 사례연구. *조형연구소논문집*, 8(1), 43-63.
- Beck, A. T. (1973). Measuring depression; the depression inventory. In T. Williams, M. M. Katz., & J. A. Shield (Eds.), *Recent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the Depressive illnes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rown, C. E., & Dunn, W. (2002).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San Antonio: A Harcourt Assessment Co.
- Case-Smith, J., & Bryan, T. (1999). The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y with sensory integration emphasis on preschool-age children with autis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3, 489-497.
- Dunn W. (2001). The sensations of everyday life: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6), 608-620.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Miller, L. J., & Lane, S. J. (2000). Towards a consensus in terminology in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Part1: Taxonomy of neurophysiological processes. *Sensory Integration Special Interest Section Quarterly*, 23, 1-4.

Abstract

Comparison With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Depending on Adolescent's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Kim, So-Young, B.O.T., O.T., Kim, Eun-Kyung, B.O.T., O.T.,*, Park, Jin-Seon, B.O.T., O.T.,**, Jun, Seo-Hyun, B.O.T., O.T., Chang, Moon-Young***, Ph.D., O.T.

*Ilsan Hospital, **O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Objective : We studied adolescent's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the depending on the adolescent's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degree. And we studied depending on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x, health status, hospital visit, the usual sensory problem. In addition, we investigated differences in each group;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Methods : We have collected 310 for students in Busan, Gyeongsangnam-do region of high school to distribute the questionnaire; Adolescent / Adult sensory profile (AASP), the Korean version Daily Stress Assessment (K-DS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Self-Esteem Scale (SE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final study part 310 to part 288 of which corresponds to 92% of the total questionnaire. The data analysis was used SPSS for windows 18.0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Sensory Seeking of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the study was low score. The higher stress score, Sensory Sensitivity and Sensation Avoiding score were higher, and the higher depression score, Low Registration and Sensation Avoiding score were higher. The lower self-esteem score, Sensation Avoiding and Sensory Sensitivity score was higher whereas Sensation Seeking score was lower.

Conclusions : Study about Korean's mean in the next studies should be investigate. In addition, a lot of study about adolescents with sensory processing problems should be investigate.

Key words : depression, self-esteem, sensory processing, stress